

16세기 후반 新選軍의 설치와 운영*

한 성 일**

1. 서론
2. 신선군의 설치
 - 1) 신선군의 용례 검토
 - 1) 설치 시기
 - 2) 설치 지역과 배경
3. 신선군의 성격과 충원
 - 1) 성격과 사회적 신분
 - 2) 신선군의 운영
 - 3) 신선군의 충원
4. 결론

<국문초록>

新選軍은 16세기 후반 하삼도에 설치된 정예군으로, '신선 정로위·별시위·감사'를 지칭한다. 이 병종에 '신선'이라는 용어가 붙은 이유는, 신선군이 형식적으로는 중앙 정예군인 '정로위·별시위·감사'의 정원 외로 선발된 군사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16세기 왜구의 침입이 증가함에 따라 조선 정부는 하삼도의 방어를 강화시켜야 했다. 다만 이 시기 사회경제적 변화로 수군을 비롯한 지방군의 전력이 급격히 약화되었기에, 이 지역에 정예군을 상시 배치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했다. 다만 중앙 정예군을 장기간 하삼도에 파견할 수 없었기에, 16세기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1S1A5B5A17048778)

** 해군사관학교 해양연구소 충무공연구담당(light-cavalry@daum.net)

전반~중반 조선 정부는 무예를 익힌 閑良 및 무과 응시자들을 군사로 편성하여 방어에 동원하였다. 신선군은 16세기 후반 이러한 조치를 제도화하면서 등장한 병종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하삼도 지역의 요충지, 특히 수군진을 중심으로 배치되었다. 신선군은 기존 지방군에 비해 숫자는 적었지만 전체 전력에서는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다.

군복무에 드는 비용을 스스로 마련하는 조선 전기 군사제도의 특징으로 인해, 신선군에 입속한 이들은 대부분 비싼 군장비를 구입하고 무예를 익힐 수 있었던 士族 혹은 상층 양인이었다. 조선 정부는 이들을 신선군에 배속하기 위해 강압적인 방법을 쓰기도 했지만, 이들을 회유하기 위해 관직 획득에 유리한 중앙 정예군에 배속될 기회를 줌과 동시에 일반 정규군에 비해 좋은 복무 환경을 제공했다. 하지만 17세기 초 일반민들이 혈역으로 여겨진 신선군에 입속하는 일이 늘어났기에 신선군의 위상은 점차 하락하게 되었다.

* 주요어: 신선, 신선 정로위, 정예군, 16세기 지방군, 수군

1. 서론

新選은 16세기 후반 하삼도의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새롭게 설치된 정예군으로, 임진왜란과 17세기 전반 수군 등 지방군의 전투 병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이하 新選軍으로 지칭). 다만 신선이라는 용어가 ‘새롭게 선발했다’¹⁾라는 뜻을 가졌기에, 신선군은 기존 병종들 중 새롭게 모집·징발된 군사로 여겨지기도 했다.²⁾

1) 民衆書館編輯局, 『漢韓大字典』, 民衆書林, 1966, “新選”, 561쪽 참조.

2) 이순신 저, 이은상 역, 『(完譯)李忠武公全書』上, 忠武公記念事業회, 成文閣, 1989, 134, 254쪽; 이순신 저, 노승석 역, 『개정판 교감완역 난중일기』, 도서출판 여해, 2016년, 71쪽; 『국역 조선 왕조실록』(『선조실록』 권17, 선조 16년, 2월 16일(기해), 『광해군일기(정초본) 권126, 광해 10년, 4월 17일(병오), 『인조실록』 권16, 인조 5년 4월 20일(병진), <https://sillok.history.go.kr>, 검색일: 2024.06.16.).

다만 『이충무공전서』 장계에 대한 번역에서 사상자의 직역으로 등장하는 新選에 대해서는 신선으로 그대로 표기하였다(이은상 역, 위의 책, 140, 154, 161쪽).

다만 근래 조선 후기 군사사 및 재정사 연구에서 신선군이 병종으로 언급되기 시작했다. 또한 조선 전기 및 임진왜란기 수군에 대한 연구에서는 이들이 수군의 전투원이며 수군 병력 중 중간 계층의 성격을 가졌음이 간략하게 언급되었다.³⁾ 또한 『조선왕조실록사전』에서 신선군을 병종으로 분류, 전반적인 성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⁴⁾ 하지만 아직까지는 신선군의 성립 과정 및 운영·성격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나오지 않고 있다.

15세기부터 別侍衛·甲士가 등 정예군이 항시 배치(留防)되었던 양계지역과 달리, 16세 이전까지 하삼도지역에는 이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⁵⁾ 따라서 신선군의 설치에 그간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지 못했던 16세기~임진왜란 직전 시기 수군을 포함한 지방군의 운영 변화를 보여준다.⁶⁾

또한 신선군은 정예군으로 창설 당시 무재를 익힌 사족 혹은 상층 양인을 입속 대상으로 목표했다. 따라서 신선군의 설치에 16세기 전반~중반 진행된 사족 충군 정책이 16세기 후반에도 지속됨과 동시에, 병종 창설로 동원이 체계화되었다는 점을 보여준다.⁷⁾

근래 수군사 및 군사사 연구자들이 역주에 참여한 『이충무공전서』 번역서에서는 신선이 병종임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있다(이민웅 외 역주, 『이충무공전서』 1권, 태학사, 2023, 227쪽; 3권, 19쪽).

- 3) 한성일, 「16세기 조선 수군의 전술과 궁수」, 『역사와 세계』 39, 효원사학회, 2011; 제장명, 「임진왜란 시기 전라좌수군의 전투구성원과 전투 수행」, 『이순신연구논총』 21,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2014; 송병규, 「군역운영의 전개」, 『조선왕조 재정시스템의 재발견』, 역사비평사, 2008; 송양섭, 「조선후기 강진병영의 지휘체계와 군수조달」, 『역사학연구』 69, 호남사학회, 2013.
- 4) 한국학중앙연구원, 『조선왕조실록사전』, “신선”(한국학중앙연구원, <http://waks.aks.ac.kr>, 검색일: 2021.03.04.).
- 5) 『경국대전』 권4, 「병전」, 留防.
조선전기 양계지역의 정예병 배치에 대해서는 김정웅, 『조선초기 지방군 운영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22, 176~204쪽 참조.
- 6) 16세기 후반 지방군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들을 참고하였다. 육군사관학교 한국군사연구실, 『한국군제사-근세조선전기편』, 육군본부, 1968, 298~299쪽; 김성우, 「임진왜란 시기 관군은 왜 약했는가?」, 『역사와 현실』 87, 한국역사연구회, 2013, 510~513쪽; 이호준, 「임진왜란 초기 경상도 지역 전투와 군사체계」, 『군사』 77, 군사편찬연구소, 2010, 118~175쪽; 김병륜, 「『절제방략』으로 본 남도제승방략의 주요 특징의 형성과정과 ‘4운체제」, 『역사와 실학』 62, 역사실학회, 2017, 127~132쪽.
- 7) 16세기 후반 혹은 임진왜란을 전후한 시기에 대한 일부 연구에서는 궁술에 재능이 있는(能射) 사족·상층 양인을 정예군으로 동원된 사실, 대규모 무과를 시행 군사를 모집한 사실, 정

2. 신선군의 설치

1) 신선군의 용례 검토

16세기 후반~임진왜란기 연대기 및 문집, 고문서 등에서 군역과 관련된 용례에서는 新選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하며, 17세기 초에는 그 출현 빈도가 더욱 늘어난다. 신선이 군역 관련 사료에 등장하는 형태는 新選, 新選定虜衛, 新選定別甲 등이다.

임진왜란기 활동한 裱龍吉(1556~1609)은 상소 및 순찰사에서 보내는 글에서 전쟁 중 정예군들이 전선에 가는 일[赴防]을 기피하고 있음을 비판하였다. 그는 전쟁 전 시기 정예병으로 지칭되었던 이들을 新選定別甲 혹은 新選定虜衛로 지목하였다.⁸⁾

1614년 경상감사로 활동한 沈悅(1569~1646)은 서장 2편에서 경상도 지역 武人(武夫)들의 어려움과 경상도 지역의 수군(舟師)의 어려움을 보고하였다. 각 서장에서는 전선 射夫로 충원되는 병종으로 出身·新選, 出身·軍功·新選定別甲을 언급하고 있다.⁹⁾

위 사례들을 고려한다면 신선과 신선 정로위·신선 정별갑은 서로 통용되는 용어임을 알 수 있다. 또한 17세기 초의 사정을 반영한 『승평지』에서 “定別甲을 新選으로 칭한다”라 언급한 사실을 고려한다면, 신선은 신선정별갑의 약칭으로, 신선 정로위, 신선 별시위, 신선 갑사를 포함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¹⁰⁾

예군을 수군진에 파견한 사실 등을 간략하게 언급하는데 그치고 있다. 하지만 16세기 후반 대규모 전쟁을 예감하고 다양한 조치를 취한 조선 국가가 단순히 기존의 임시적인 조치만을 고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김성우, 『조선중기 국가와 사족』, 역사비평사, 2001, 125~130쪽; 「임진왜란 시기 관군은 왜 약했는가?」 『역사와 현실』 87, 2013, 510~513쪽; 이호준, 「임진왜란 초기 경상도 지역 전투와 군사체제」 『군사』 77, 2010, 158~159쪽; 한성일, 「16세기 조선 수군의 전술과 궁수」 『역사와 세계』 39, 2011, 148~149쪽.)

- 8) 『금역당집』 권2, 疏劄, 「六條」, “而平日所謂精兵者 如新選定虜衛不圖入使臣守令之軍官 則必圖免於官吏”; 권3, 書, 「上洪巡察(甲午)」, “其所謂軍官者 皆平日新選定別甲之習於騎射者 比之耒耜之民百倍精矣 而憚於赴防 或圖入於使臣守令而爲軍官”.
- 9) 『남파상국집』 권5, 書狀, 「慶尙監司時書狀(乙卯)」, “自今以後 右道戰船射夫 則以全羅忠淸兩道出身新選抄送”(이하 「을묘년 경상감사시 서장 1」); 「慶尙監司時書狀(乙卯)」, “各船射夫 皆以出身軍功新選定別甲等抄送 而元數不多”(이하 「을묘년 경상감사시 서장 2」).

조선 후기 경상도 지역 읍지 및 문집에 수록된 임진왜란 전[平時]의 군역에서는 신선 정로위와 신선 별시위가 별도의 병종으로 등장하여, 신선군 내에서도 병종의 구분이 실제로 존재했음을 보여준다.¹¹⁾

평시 군적에 속한 (군사): 내금위 5명[세주: 현존 없음], 정로위 16명[세주 현존 없음, 신선 정로위 35명, 현존 9호, 신선 별시위 40호 현존 5호, 서울 (변상) 갑사 50호[주: 현존 없음], 기병 278호, 현존 128호, 보병 324호, 현존 215호, 팽배·대졸 2호[주: 현존 없음] …¹²⁾

정로위 3명 솔(정) 6명, 서울 (변상) 별(시위) 7명 솔(정) 14명, 신선 정(로 위)·별(시위) 40명 솔(정) 80명, 갑사 90명 보(인) 360명, 기병 475명 보(인) 1,025명, 보병 775명 보(인) 1,555명.¹³⁾

기병 26호, 보인을 합치면 94명, 남아있는 것은 단지 16명, 신선 40호 솔 정을 모두 합치면 82명, 현존은 14명 … 검사복 10인 현존 1명, 서울 (변상) 정로위 호보 합쳐 8명, 별시위 합쳐 호보 3명, 1명도 남아 있지 않음¹⁴⁾

10) 『승평지』 上(대구가톨릭대학 중앙도서관 소장, 동 911.97 이57사), 軍丁, “定虜衛 八十八名 別侍衛 三十一名 甲士 十三名(세주: 定別甲稱新選)”(이하 『승평지 군역』).

11) 다만 아래 자료에서는 신선 갑사가 등장하고 있지않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12) 『一善誌』 권1, 軍總, “平時家付 內禁衛 五名(세주: 時無) 定虜衛 十六名(세주: 時無) 新選定虜衛 三十五名 時存九戶 新選別侍衛 四十戶時 存五戶 京甲士 五十戶(세주: 時無) 騎兵 二百七十八戶 時存一百二十八戶 步兵 三百二十四戶 時存二百十五戶 彭排隊卒 二戶(주:時無)…”(이후 이 자료는 『일선지 군역』으로 지칭).

위 자료는 임진왜란 전[平時] 군안임을 명시함과 동시에, 본래의 군역과 읍지편찬 당시에 남아 있던 군역(時存)을 병기하고 있다. 따라서 자료에 혼입된 포보·속우군·어영군 등 임진왜란 이후 창설된 병종은 읍지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당대 자료가 혼입된 결과로 추정된다.

13) 『商山誌』 권1(규장각 소장, 古-4790-31), 軍兵, “定虜衛三名 率六名 京別七名 率十四名 新選定別四十名 率八十名 甲士九十名 保三百六十名 騎兵四百七十五名 保一千二十五名 步兵七百七十五名 保一千五百五十五名”(이후 이 자료는 『상산지 군역』으로 지칭).

위 읍지에는 이 군역이 전쟁 전 액수임이 명시되지는 않았다. 다만 이 자료에는 전쟁 후에 창설된 병종이 등장하지 않으며, 군역(1,390명)이 15세기 후반 상주목의 육군 제색군의 군역(1,490명)과 큰 차이가 없다. 또한 『商山誌』에 전쟁 전[平時] 전결 액수가 등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전쟁 전 군역으로 간주하였다(『성종실록』 권15, 성종 3년 2월 1일 (무진); 위 읍지 권1, 田賦).

전쟁 전 군액에서 발견되는 또 한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신선 혹은 신선 정로위·별시위와 서울로 번상하던 일반 정로위·별시위·갑사와 별도로 등장함과 동시에, 그 군액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¹⁵⁾ 이는 신선 정로위·별시위·갑사가 기존 병종 중 새롭게 선발한 군사가 아닌, 일반 정로위·별시위·갑사와 구분되는 병종임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2) 설치 시기

현재 남아 있는 조선시대 법전 및 연대기 자료에서 신선군의 설치 시기에 대해 명확히 기록한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16세기 후반 정부 기록들이 임진왜란 과정에서 사라졌기 때문으로 추정된다.¹⁶⁾

17세기 후반 반계 유형원(1622~1673)은 신선을 훈련도감 및 경포수, 속오군, 어영군 등과 함께 임진왜란 이후에 성립된 신군제로 분류하였다.¹⁷⁾ 이보다 약간 더 이른 시기에 활동한 姜大遂(1591~1658)은 신선이 전쟁 전에 존재했던 병종임을 인지했지만, 정확한 설치 시기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다.¹⁸⁾ 이는 17세기 중반~후반 학자 및 관료들 역시 신선군의 설치 과정을 명확히

14) 『苟全集』 권2, 疏, 「奉化陳弊疏(代縣監柳修巖疹作)」, 「騎兵二十六戶 并其保九十四名者 時存只十六名 新選四十戶 並其率八十二名者 時存只十四名 … 兼司僕十人 存者一人 京定戶保并八名 別侍衛戶保並三名 俱無一名之存」(이후 이 자료는 「봉화현 군액」으로 지칭).

柳疹이 1623~24년 봉화현감으로 부임한 사실을 고려한다면 위 자료 역시 1620년대 이전의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 군액[時存]에 대비되는 군액 역시 전쟁 전의 군액을 반영한다고 추정된다(『修巖集』 年譜 권1, 天啓3년 癸亥 4월).

15) 위 자료들에서 京甲士·京別侍衛·京定 등의 용례와 같이 일반 정로위·별시위·갑사 앞에 京자를 붙이는 경우가 확인된다. 이는 이들이 지방군인 신선군과는 달리 서울로 번상하는 중앙군임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고 추정된다.

16) 『광해군일기(중초본)』 권8, 광해 즉위년 9월 17일(신축).

17) 『礮溪隨錄』 권21, 「兵制」, 諸色軍士, “本國兵制 在大典者 是謂舊制 壬辰倭亂以後 有所添設 謂之新制…而新制 則唯存都監 京兵即京砲手 馬隊及東伍軍 公私賤編伍者 外近來雜設 如御營軍精抄軍 新選軍 別砲手 別隊 武學射夫 各廳牙兵 各廳募軍 各廳保奴之類…”.

조선 후기 새로운 병종의 창설에 대해서는 차문섭, 「조선후기 중앙군제의 재편과 수도방위」, 『조선시대 군사관계 연구』, 단국대학교출판부, 1996년; 「중앙군역제도의 발달」, 『한국사』 30권, 국사편찬위원회, 1998; 이겸주, 「지방군제의 개편」, 『한국사』 30권, 국사편찬위원회, 1998 참조.

18) 『寒沙集』 권4, 「兵曹請禁正軍投屬新選之弊啓辭」, “新選定虜衛則無明白載錄之處 未知設於何時也 新選之名自平時有之 則其設也亦非不久 而一時權設則明矣”.

알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연대기 자료 중 신선군이 언급되는 가장 이른 시기의 자료는 『선조실록』이다. 1583년 2월 조정에서는 지방(外方)에 거주하는 무과 응시자들을 무과가 마친 후 일괄적으로 ‘신선 정로위’에 배속하는 정책이 논의되었다. 이 정책은 병조판서였던 이이에 의해 시행되었다가 무과 응시자들의 반발로 인해 폐지된 정책이었다.¹⁹⁾ 율곡이 병조판서에 임명된 시점이 1582년 12월임을 고려한다면, 이 정책은 1582년 12월~1583년 2월 사이에 시행된 것으로 추정된다.²⁰⁾

위 실록 기사에서는 지방 무과 응시자들이 배속된 병종이 ‘신선 정로위’이며, 이들의 임무가 한양으로의 변상이 아닌 변경 요충지(要害處)에 분방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²¹⁾ 또한 무과응시생들을 일괄적으로 병력으로 배정하는 방식은, 1621년 충청도에서 신선군(新選)을 충원하는 과정에서도 확인된다.²²⁾ 따라서 당시의 조치는 중앙군 정로위가 아닌 신선군과 관련된 조치였음을 알 수 있다.

다만 1580년대 이전의 사정을 반영하는 고문서에서 신선군의 존재가 확인되기에, 율곡이 신선군이 창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1571년 전라감사 유희춘이 전라도 일대를 순행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절목으로 추정되는 고문서에서는, 전라도 지역 수군진(鎭浦)에 수군·육군뿐만 아니라 ‘신·구 정로위·별시위(新舊定別)’가 배치(分防)된 사실이 확인된다.²³⁾ 물론 ‘신·구 정로위·별시위’가 중앙군 정로위·별시위를 기존 번을 썼던 이들(舊番)과 새롭게 번을 서는 이들(新番)으로 구분한 것을 지칭했을 가능성도 있다.²⁴⁾

19) 『선조실록』 권17, 선조 16년, 2월 16일(기해), “先是兵曹判書李珣建白以上番及入防軍士疲弊 … 且外方武科赴學學子 過試從即定新選定處衛 使之分防要害處 以此閤閱子弟苦之 不肯赴學 武士乏小革罷之 至是同知申翌上疏 上命更議于廟堂”.

20) 『율곡전서』 권34, 年譜 下, 壬午十年 十二月.

21) 『상산지 군역』, 『일선지 군역』, 『선조실록』 위의 기사, “且外方武科赴學學子 過試從即定新選定處衛 使之分防要害處”.

22) 『광해군일기(중초본)』 권56, 광해 13년 6월 23일(계사).

23) 『眉巖日記』 6책, “各鎭浦分防新舊定別及元防水陸軍等乙 式爲留鄉所所用良 檢督准防與否相考 次以某浦某番某軍元數幾名 是如都目進呈爲旂 三月以後准防公文聚待”.

이 문서는 『眉巖日記』 6책 일기가 끝난 장에 여러 문서들과 함께 수록되어 있으며, 전라감사로 부임한 유희춘이 왜변에 대응하여 지역의 방어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로 추정된다.

다만 세종대 甲士의 군역을 늘리는 과정에서 등장한 新甲士와²⁵⁾ 17세기 후반 수군진에 砲手가 증원되면서 등장한 新砲手가 기존 갑사 및 舊砲手の 운영에 있어 차이를 보인 점을 고려 한다면²⁶⁾, ‘신 정로위·별시위’는 신선군을 의미했을 가능성이 높다.

육군사관학교에 소장된 16세기 중반~후반 충청도 지역의 방어태세를 보여주는 고문서에서는 충청도의 수군진에 신선군이 배치되었음이 직접적으로 확인된다.²⁷⁾

(충청수영) 입방 수군 4번을 통틀어 원액 3,760명 그 중 능사인은 600명이고 4번으로 나눈다. 조방군인 정로위 20명 갑사 26명 별시위 2명 향 시도목부인 127명 모두 179명. 4번으로 나누어 10일마다 교대한다. ○ (작은 글씨로 추기) 지금은 신선 정로위, 별시위 합쳐 110명을 2번으로 나눈다.²⁸⁾

위 고문서 본문의 뒷부분에는 충청수영에 판옥선과 맹선이 동시에 배치되어 있던 사실이 확인된다.²⁹⁾ 을묘왜변 직후 판옥선이 대규모로 건조되며 맹선을 대체해간 사실을 고려한다면,³⁰⁾ 위 자료는 을묘왜변 직후의 사정을 반

24) 『현종개수실록』 권8, 현종 4년 2월 29일(무진).

25) 『세종실록』 권119, 세종 30년 1월 28일(을묘), 3월 9일(갑오).

26) 문광균, 「조선후기 양산 甘同倉의 설치와 변천」, 『한국문화』 66, 2014, 371쪽.

27) 「군사작전계획서」(육군박물관, 유물번호 087111/000, 이하 「군사작전계획서」).

이 문서는 조선시대 군사사 연구자인 김병륜에 의해 전반적인 분석이 이뤄진 바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김병륜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이 문서를 분석하였다(김병륜, 「절제방략과 제승방략」 『학예지』 19, 2012, 123, 132쪽; 「131. 수군절목」, 『국방일보』, 2010.10.06.

(https://kookbang.dema.mil.kr/newsWeb/20101006/1/ATCE_CTGR_0020050172/view.do, 검색일: 2024.06.16.); 「132. 호서방략」, 『국방일보』, 2010.10.13.(https://kookbang.dema.mil.kr/newsWeb/20101013/1/ATCE_CTGR_0020050172/view.do, 검색일: 2024.06.16.); 「133. 호서방략 지지면」, 『국방일보』, 2010.10.20. (https://kookbang.dema.mil.kr/newsWeb/20101020/1/ATCE_CTGR_0020050172/view.do, 검색일: 2024.06.16.).

28) 「군사작전계획서」, “入防水軍通四番元額三千七百六十名 其中能射人六百名分四番 助防軍定處衛二十四 甲士二十六 別侍衛二 鄉試都目付人 一百二十七 合一百七十九名 以分四番十日相遞○(細注) 今則新選定處衛別侍衛并一百十名以分二番”

29) 위의 고문서, “兵船大猛船二隻 中猛船八隻 小猛船十隻 質鈍不行用 … 板屋船五隻內 三隻留鎮二隻行用”.

영한다고 볼 수 있다.

위 문서에서는 정로위·감사·별시위와 함께 무과응시자로 보이는 鄉試都目付人이 수군진에 助防軍으로 배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16세기 전반~중반 남부지역 수군진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 정예군뿐만아니라 무예를 익힌 한량이 다수 배정된 사실을 고려한다면, 이 역시 16세기 중반의 사정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³¹⁾

다만 한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위에서 언급한 사항에 대한 추가 설명(細注)으로 수군진에 파견되던 육상 병력들이 신선 정로위·별시위로 대체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세주가 적힌 시기에 대해 정확히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이 설명은 신선군이 설치되어 수군진에 배정되기 시작한 시기가 적어도 1555년 이후라는 사실을 확인해 준다.³²⁾

임진왜란 기간 충청수군절도사를 역임했던 李繼鄭(1542~1595)이 1574년 秉節校尉에 임명되면서 받은 告身에는 신선군의 설치 시기를 조금 더 특정할 수 있는 단서가 등장한다. 이 고신의 발급년도 왼쪽에 작은 글씨로 메모된 내용에는 이계정이 신선 정로위였던 기사년에 仕加와 別加를 받았다고 적고 있다.³³⁾ 이는 적어도 1569년에는 신선군이 설치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명종의 치세 후반인 1560년대에는 왜구의 침략에 대응하여 能射者를 대대적으로 초발하는 조치가 취해졌으며, 이러한 정책은 궁술을 익힌 이들을 선발하기 위해 새로운 법령(科條)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³⁴⁾ 따라서 위 사례들을 종합한다면, 신선군은 1560년대 능사자들을 초발하기 위해 설치되었

30) 김재근, 『조선왕조군선연구』, 일조각, 1977, 83~91쪽.

31) 한성일, 앞의 논문, 2011, 136~138, 144~149쪽.

32) 김병륜은 위 문서 기본적으로 16세기 중반에 작성된 것이지만, 여러 시기의 고문서가 섞여 있는 상황(1558년, 1559년, 1574년 등)이기에 시기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김병륜, 앞의 논문, 2012, 132쪽).

33) 「1574년 이계정 고신」(해남 영산사 소장,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http://hknkostma.org/emuseum/service/data/dataUcl.jsp?data_uci=KCIS_U038+MPNHKSMC+KSM-XA.1574.1111-20100515.HYS00002), 검색일: 2023.07.14.), “新選定虜衛時己口仕加己八別加并超”(이하 「이계정 고신」).

34) 『명종실록』 28권, 명종 17년 11월 11일(辛卯); 권29, 명종 18년 7월 10일(丙戌); 『천곡수필』, 「군정」, “今者 新創科條以爲恆式 凡可操弓者類抄而勸懲之”

거나, 혹은 1560년대 확보한 농사자들을 정비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3) 설치 지역과 배경

현재 남아 있는 자료 중 16세기 후반 신선군의 설치 배경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는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신선군의 설치 배경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신선군의 특징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선군은 한양 번상이 주임무였던 기존 정예군과 달리 지역 방어를 주임무로 맡고 있었다. 17세기 중반 金弘郁(1602~1654)은 조선의 군사제도를 분석한 글에서 임진왜란 이전 지방군으로 正兵[騎·步兵]·水軍과 함께 신선군을 지목하였으며, 이들이 (지방의) 병영과 수영에 입번하는 것이 원칙이었다고 언급하였다.³⁵⁾ 신선군이 병·수영에서 복무한 사실은 1616년 사헌부의 보고에서 역시 동일하게 나타난다.³⁶⁾

1580년대 병조판서 율곡의 구상 역시 신선군을 강화하여 변경 요충지[要害處]에 배치하려 했던 것임을 고려한다면, 신선군은 설립 초기부터 지방군으로 운영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³⁷⁾

한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16세기 후반~17세기 초 신선군의 활동이 확인되는 지역 대부분이 왜구 및 일본 방어의 최전선이었던 하삼도라는 점이다.

앞서 분석한 육군사관학교 소장 고문서에는 적어도 16세기 후반에는 충청도 지역 수군진에 신선군이 배치되었음이 확인된다.³⁸⁾ 또한 임진왜란 직전~임진왜란기 기록에서는 양남 지역에서 신선군이 활동한 사실이 확인된다.

임진왜란 직전인 1591년 전라좌수사로 부임한 이순신의 일기와 장계에서는 전쟁 전부터 전라좌수군 소속 수군진에 신선군이 배치된 사실과, 전쟁 중 이들이 수군진 군선의 전투원인 射夫로 활동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35) 『鶴洲全集』 권10, 「論兵制」, 總論, “平時則只有上番諸色軍及步兵 外方各營新選騎步兵水軍… 前日兵水營入番新選水軍 又皆沒數作木以充入己之資”; 外方新選(이하 「학주집 논병제」).

36) 『광해군일기(중초본)』 권36, 광해 8년 5월 6일(을해).

37) 『선조실록』 권17, 선조 16년, 2월 16일(기해).

38) 주 28) 참조.

(1592년 2월 11일) 식후에 선상에 나가서 **신선**을 점고했다.³⁹⁾

(1592년 4월 30일) 본도(전라도)의 연해 각 군현과 군진(邊城)에 입방한 **신선·조방군**과 같은 정예군(精強士卒)은 모두 육전에 부방하였습니다. 변진과 잔보에는 병기를 지닌 자가 드물며, 단지 수군과 무장하지 못한 무리만을 거느리고 있기에 그 세가 심히 약하여 적을 제어할 계책이 없습니다.⁴⁰⁾

(1592년 6월 14일) 접전할 때에 … 화살을 맞고 죽은 사람은 … 사도 1선 군관 진무성, 임흥남, 사부 수군 김역수, 진언량, **신선 허복남**, 조방 전광례, 방포장 허원중, 토병 정어금 …⁴¹⁾

(1592년 7월 10일) 접전할 때에 사졸 중에 사도 1선 감사 배증지, 녹도 1선 향양 **신선 배응구**, 강진 수군 강막동, 동포(녹도) 2선 격군 장흥 수군 최응손 …이 철환을 맞고 죽었고, 방답선 격군 토병 강돌매, 수군 정귀련, 김수억, 김사화, 토병 정덕성, 손원희, 같은 진 2선 격군 정병 채흡, 수군 양세복, 하정, **사부 신선 김열**, 동진(방답) 구선 격군 수군 김윤방, 서우동, 김인산 김가, 응적, 이수궁, 송쌍걸, … 녹도 2선 군관 성길백, **신선 김덕수**, 수군 강영남, 주필상, 최영안, 토병 사노 모로손, 사부 장흥군사 민시수, 격군 흥양 수군 이언정 …이 철환을 맞았으나 중상에 이르지는 않았습니.⁴²⁾

(1592년 9월 10일)신이 탄 배의 토병 수군 김영견, 포작 금동, 방답 구선 **순천사부 신선 박세봉** 등이 화살을 맞고 약간 상처를 입었습니다.⁴³⁾

39) 『이충무공전서』 권5, 「난중일기」 1, 임진 2월 11일(壬寅), “食後出船上 **新選**點考”.

40) 위의 문집 권2, 장계 1, 「赴援慶尙道狀 二」, “本道內地沿海各官及邊城入防如**新選助防軍**等精強士卒 咸赴陸戰 邊鎮殘堡 持兵者鮮少 只率水軍徒手之輩 其勢甚弱 他無捍禦之策”.

41) 『이충무공전서』 권2, 狀啓 1, 「唐浦破倭兵狀」, “接戰時 … 逢箭致死 … 蛇渡一船軍官陳武晟 林弘楠 射夫水軍金億壽 陳彥良 **新選許福男** 助防田光禮 放砲匠許元宗 土兵鄭於金 …”.

42) 『이충무공전서』 권2, 장계 1, 「見乃梁破倭兵狀」, “接戰時士卒中 … 蛇渡一船甲士裏中之 鹿島一船興陽新選朴應龜 康津水軍姜莫同 同浦二船格軍長興水軍崔應孫 … 中丸致死 … 防踏一船格軍土兵姜突每 水軍鄭貴連金水億金士化 土兵鄭德成孫元希 同鎮二船格軍正兵蔡洽 水軍梁世卜河丁 **射夫新選金烈** 同鎮龜船格軍水軍金允方徐于東金仁山金山加應赤李水背宋雙傑 … 鹿島二船軍官成吉伯 **新選金德壽** 水軍姜永男朱必尙崔永安 土兵私奴毛老孫 射夫長興軍士閔時濤 格軍興陽水軍李彥丁 … 中丸不至重傷”.

임진왜란 초기 경상도 지역의 사정을 기록한 장계 및 일기 자료에서는 이 지역 수군진에 신선군이 배치됨과 동시에, 육상전에 투입된 사실이 확인된다.

(1592년 5월 10일)보성군수 김득광이 어린 여자 1명을 붙잡았는데 ... 기장에 거주하는 **신선 김진명**의 술정으로, 날짜는 기억할 수 없으나 4월 왜적 등이 부산포에 도박하자, 호수 진명은 군령으로 인하여 소인에게 **군장을 지우고 부산포로 부방하였습니다**. 마비을이현에 도착해 왜적이 이미 부산을 함락했다는 것을 듣고 소인을 거느리고 돌아와서, 기장현 성 내에 결진하였습니다.⁴⁴⁾

(1592년 4월 17일) 길에서 창검에 상처를 입은 사람을 만났다. (무슨 일인지) 물으니 답하기를, "**신선 정별갑(政別甲)**으로 부산으로 부방했습니다. 동래의 왜적이 성을 함락시킬 때 적의 무기(鋒)에 중상을 입어 많은 시체 속에 몸을 숨겼다가, 밤을 틈타 기어서 간신히 생환하였습니다."⁴⁵⁾

(1592년 5월) 비록 도내 적이 곳곳에서 매우 치성하지만, 경성으로 올라간 적을 불가불 목숨을 걸고 추격해야 하기에, 우병사 조대곤에게 각 진포에 원래 배정된 군사(元軍) 중 일부는 성을 지키고, 일부는 **신선 정별갑**과 함께 병마절도사가 거느리고 하루에 300리를 이동하여 순번사에게로 가서, 합세하여 (적을) 공격하게 했습니다.⁴⁶⁾

임진왜란 직후였던 17세기 초 실록·승정원 일기 등 연대기 자료 및 문집에서 역시 하삼도 지역을 제외하고서는 신선군과 관련된 기록을 찾아보기

43) 『이충무공전서』 권2, 장계 1, 「釜山破倭兵狀」, “臣所騎船土兵水軍金永見 鮑作今同 防踏龜船順天射夫新選朴世奉等 逢箭暫傷”.

44) 『이충무공전서』 권2, 장계 1, 「玉浦破倭兵狀」, “寶城郡守金得光所擒兒女一人...以機張居新選金晉明率丁 日不記去四月 倭賊等釜山浦到泊 戶首晉明因軍令 使小人軍裝負持率赴同鎮 至馬飛乙耳峴 聞倭已陷釜山 還率小人 直走機張縣城內結陣 軍卒奔潰”.

45) 『영남적고록』 상, 만력 17년 임진, 4월, 17일, “道遇槍劍被傷人 問之則答云 以新選政別甲 赴防于釜山 東萊倭賊陷城之時 重被賊鋒潛身衆尸 中冒夜 匍匐近得生還云”.

46) 『征蠻錄』 권3, 「自雲峯還本道啓(5월 일 순찰사 김수)」, “道內之賊處處雖方大熾 上去京城之賊 不可不決死追擊 右兵使曹大坤處 各鎮浦元軍內 一分乙良守其城 一分乙良新選定別甲 并以兵使領率日行三百馳及巡邊使所到處 合勢功擊事”.

어렵다.⁴⁷⁾ 또한 18세기 후반의 기록이지만, 조선 전역의 군역을 망라한 『양역실총』 및 『부역실총』 등의 자료에서 신선군이 확인되는 지역은 양호 지역에 한정된다.⁴⁸⁾

신선군이 하삼도 지역에 설치된 이유는 16세기 왜구의 침입이 급증함에 따라, 이 지역에 정예군을 상시 배치하여 이 지역의 군비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조선 전기 정규군은 무술 실력[武才]을 시험[取才]하여 선발한 정예군과 무술 실력에 상관없이 군역의 의무를 지닌 양인을 편성한 일반 군사로 구분되었다. 15세기 중반~후반을 기준으로 할 때, 정예군에는 임금의 측근에서 호위 임무를 맡는 군사[禁軍]인 내금위·겸사복·우림위, 중앙군으로 수도 한양의 방어 임무를 맡은 별시위·감사, 16세기 전반에 창설된 정로위 등이 포함되었다.⁴⁹⁾ 취재를 거치지 않은 일반 군사에는 육군 병력인 正兵과 수군 병력인 水軍이 포함되었다.⁵⁰⁾

조선 전기 정예군은 기본적으로 중앙군이었지만, 방어가 긴요했던 평안도·함경도 지역의 경우 15세기 전반부터 감사 등 정예병의 변상을 면제하여 지역 방어에 동원[留防, 赴防]하는 조치가 취해졌다.⁵¹⁾ 이에 더하여 充補甲士·預差甲士라 불리는 정원 외 감사를 설치, 이들 역시 지역 방어에 동원되었다.⁵²⁾ 또한 16세기에는 여진족의 침입에 대비하여 황해도에 거주하는 정

47) 『선조실록』 권158, 선조 36년 1월 14일(신미); 『선조실록』 권217, 선조 40년 10월 7일(병인); 『광해군일기(중초본)』 권44, 광해 10년 4월 17일(병오); 『승정원일기』 27책, 인조 7년 7월 23일(병오); 『白沙集』 권5, 차자, 「(庚子)以都體察使在全羅道筭」(이하 「경자년 전라도 도체찰사 차자」로 지칭).

48) 『良役實摠』(규장각, 奎貴 12210), 『關西良役實摠』(규장각, 奎 17262), 『賦役實總』(규장각, 奎貴 252).

위 자료에서, 하삼도 지역 중 경상도의 경우만이 신선 직역이 등장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49) 노영구, 「중앙군의 편성과 운영 방식」, 『한국군사사』 5, 경인문화사, 2012, 250~263쪽 참조; 이왕무, 「국방체제의 변화와 외침의 빈발」, 『한국군사사』 6, 경인문화사, 2012, 269~293쪽 참조.

50) 노영구, 「진관체제의 확립과 운용」, 『한국군사사』 5, 경인문화사, 2012, 383~386쪽 참조; 이민웅, 「수군의 체제 정비와 제도적 발전」, 『한국군사사』 5, 경인문화사, 2012, 394~397쪽 참조.

51) 『경국대전』 권4, 「병전」, 留防. 김정웅, 『조선초기 지방군 운영 연구』, 부산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2022, 176~204쪽.

52) 『경국대전』 권4, 「병전」, 변차도독; 『세종실록』 권99, 세종 25년 1월 20일(병자); 『성종실

로위·별시위·갑사 등의 정예군을 평안도 변경에 배치(赴防)하는 조치가 시행되었다.⁵³⁾

하삼도의 경우 15세기 중반 유사시에 비번(下番)으로 지역에 거주 중인 정예군을 소집하여 방어에 동원하는 규정이 만들어졌을 뿐, 16세기 이전까지 지역 방어를 위해 정예군을 상시 배치하는 조치는 시행되지 않았다.⁵⁴⁾

하삼도 지역이 왜구 방어의 최전선임에도 불구하고 양계와 같은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던 이유는, 15세기 후반 이전까지는 이 지역 방어의 주력이었던 수군의 전력 약화가 두드러지지 않았으며, 무엇보다도 왜구의 침입이 상대적으로 소강상태를 보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⁵⁵⁾

15세기 후반 대마도 왜인들과의 갈등이 점차 고조됨과 동시에, 16세기 들어 삼포왜란·을묘왜변·손죽도 왜변 등 대규모 왜변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하삼도 지역의 방어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했다.⁵⁶⁾

하지만 당시 하삼도 방어의 주력이었던 수군과, 육상 방어를 맡았던 정병의 전력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었다. 수군은 천역으로 여겨짐과 동시에 역의 부담이 무거웠기에 타군 보다 이른 시기인 15세기 중반부터 전력의 약화가 진행되었다. 15세기 후반에 들어서는 주력 전투원인 射官·射夫를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16세기에 들어서는 수군의 유망 및 피역으로 인해 정원을 확보하는 것조차 어려움을 겪었다. 16세기는 양인층이 전반적으로 몰락하는 시기였기에 正兵 역시 그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⁵⁷⁾

16세기 수군·정병 등 일반군의 전투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전투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병종과 인력은, 중앙의 정예군과 무과에 응시하기 위해 무예를 익히던 사족 혹은 상층 양인들이었다. 따라서 16세기 여진족과 왜구의 침입이 급증하는 상황에서는, 국가 전반적으로 전투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정예

록』 권76, 성종 8년 2월 25일(갑오).

53) 『을곡전서』 권5, 疏筭, 「陳海西民弊疏」; 『학봉집』 속집 권2, 소, 「黃海道巡撫時疏(癸未)」.

54) 김정웅, 앞의 논문, 157~158쪽.

55) 한성일, 앞의 논문, 2011, 129~130쪽.

56) 15세기 후반~16세기 남부 지역의 정세에 대해서는 이왕무, 앞의 책, 294~325쪽 참조.

57) 한성일, 앞의 논문, 2011, 129~131쪽, 135~137쪽, 142~143쪽.

군과 무과를 준비하던 무인들을 군사로 동원하는 일이 매우 중요해졌다.⁵⁸⁾

따라서 16세기 왜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하삼도 지역에도 양계 지역과 같이 정예병을 상시적으로 배치해야할 필요성이 있었다. 실제로 왜구의 침입이 증가하던 15세기 후반부터 중앙 정예군을 수군진에 배치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또한 16세기에는 왜변에 대응하여 別赴防·助防이라는 명칭으로 중앙군의 정예군이 한양에서의 번상을 면제받거나, 혹은 하번 중에 소집되어 변경 지역에 파견되는 일들이 점차 관행이 되었다.⁵⁹⁾

다만 하삼도 지역 정예군은 기본적으로 한양으로 번상하는 것이 주된 임무였으며, 이들이 중앙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았다. 따라서 이 지역에 거주하는 중앙군 소속 정예군을 장기간 남부 지역에 파견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었기에,⁶⁰⁾ 이 지역의 방어를 위해 새로운 정예군을 창설할 필요가 있었다.

실제로 16세기 전반~중반 조정에서는 왜구를 방어하기 위해 무재가 있는 閑良 및 무과 응시자들을 징발하여, 중앙의 정예군을 대신하여 남부지역의 수군진 및 연해 요충지에 배치하는 정책을 펼쳤다.⁶¹⁾ 앞서 본 충청도 지역의 고문서의 사례를 고려한다면, 이러한 시도는 이후 신선군 창설로 이어졌다.⁶²⁾

3. 신선군의 성격과 충원

1) 성격과 사회적 신분

16세기 후반~임진왜란, 그리고 신선군의 수포화가 진행되던 17세기 전반 까지도 신선군은 기본적으로 정예군으로 분류되었다.

58) 김성우, 앞의 책, 2001, 212~125쪽 참조.

59) 중앙 정예군의 수군진 배치에 대해서는 한성일, 앞의 논문, 2011, 138~149쪽 참조.

60) 『세조실록』 권6, 세조 3년 2월 25일(기미) : 『중종실록』 권11, 중종 5년 5월 9일(계해); 권12, 중종 5년 8월 14일(정유).

61) 한성일, 앞의 논문, 2011, 142~149쪽.

62) 주 28) 참조.

임진왜란 초 전라좌수사 이순신은 신선군을 조방군과 함께 정예군(精強士)으로 지칭하였다.⁶³⁾ 또한 임진왜란기간 의병활동을 하였던 裴龍吉(1556~1609) 역시 신선군(新選定別甲, 新選定虜衛)을 무예를 익힌 정예군으로 언급하였다.⁶⁴⁾

17세기 초 조정에서는 종종 신선군에게 군포를 거두는 일이 폐단으로 논의되었다. 다만 이러한 논의는 신선군 선발 당시 군포를 거두기 위해 신분과 무재를 고려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된 것이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신선군이 정예군이라는 점이 전제된 것이었다.⁶⁵⁾

실제로 임진왜란 직후 수군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경상도와 전라도 지역의 신선군은 출신·군공과 함께 전투원인 射夫로 일괄 배치되었다.⁶⁶⁾ 또한 여진족의 세력이 강성해 짐에 따라 북부지역으로 파견할 남부지역의 정예병력 중에 신선군이 포함되었다.⁶⁷⁾ 그리고 17세기 전반 속오군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과정에서 신선군은 일반 속오군으로 분류되지 않고 出身·武學 등과 別隊로 편성되어 관리되었다.⁶⁸⁾

17세기 전반~중반 신선군에 대한 논의에서 항상 등장하는 설명 중 하나는 신선군이 사족 혹은 이에 준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창설되었다는 점이다. 1616년 사헌부에서는 신선 정로위는 설립 당시 입속 대상으로 삼은 이들이 사족 및 업무 중 균역을 지지 않은 이들이라 설명했다.⁶⁹⁾ 17세기 중반 김홍욱 역시 신선군의 모집대상을 양반자재 및 무고한 양민(兩班子枝及無故平民)으로 언급하였다.⁷⁰⁾

63) 주 40) 참조.

64) 『琴易堂集』 권3, 書, 「上洪巡察(甲午)」, “其所謂軍官者 皆平日新選定別甲之習於騎射者 比之耒耜之民 百倍精矣”; 권2, 疏筭, 「六條疏」, “而平日所謂精兵者, 如新選定虜衛, 不圖入使臣守令之軍官”.

65) 『선조실록』 권217, 선조 40년 10월 7일(병인); 『광해군일기(중초본)』 권36, 광해 8년, 5월 6일(을해); 권126, 광해 10년 4월 17일(병오); 권145, 광해 11년 10월 24일(계유).

66) 「경자년 전라도 도체찰사 차자」; 주 9).

67) 『啓本臚錄』 권3(규장각, 한은 73), 만력 39년 10월 초 10일.

68) 『인조실록』 권16, 인조 5년, 4월 20일(병진).

69) 『광해군일기(중초본)』 권36, 광해 8년 5월 6일(을해).

70) 『학주전집』 권10, 「논병제」, 외방신선.

신선군이 정예군의 성격과 상층계층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 이유는 조선 전기 군사제도의 구조와 깊은 관련이 있다. 조선 전기 궁술 및 기마 궁술을 익히기 위해서는 값비싼 군장과 말을 자비로 구입해야 했으며, 생계를 위한 노동에서 벗어나 장기간 무예 수련에 전념해야 했다. 따라서 정예병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사족 혹은 상층 양인일 가능성이 높았다.⁷¹⁾

앞서 언급한 1560년대 말 신선군이었던 이계정은 임진왜란 당시 충청도 수군사를 역임했던 무관으로, 그의 부·조부 역시 현관을 역임한 것이 확인된다.⁷²⁾ 또한 임진왜란 당시 영덕에 거주하던 신선으로 확인된 申弘濟는 그의 조부가 울산군수, 증조부가 생원인 것이 확인되며, 그 또한 첨지중추부사를 역임하였다.⁷³⁾

이 밖에도 1605(선조 38년)에 간행된 『宣武原從功臣錄券』에는 신선군(新選)의 직역을 가진 이들이 약 20명이 발견된다.⁷⁴⁾ 이들 중 가계 및 신분을 알 수 있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지만, 權應鍾과 盧潤發는 읍지 및 문집 등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다.

권응추는 영천성 전투를 주도한 권응수의 친적으로, 임진왜란 당시 권응수와 함께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그가 字(汝平)와 號(智山)를 모두 갖춘 것을 볼 때 사족임을 알 수 있다.⁷⁵⁾

임진왜란 당시 전라좌수사 이순신의 막하에서 활동한 노윤발은 그의 아버지가 선전관을 역임했으며, 자(時華)가 있음이 확인된다. 이는 그가 사족 혹은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보여준다.⁷⁶⁾

71) 한성일, 앞의 논문, 2011, 124~128쪽; 송양섭, 「국역과 군역의 편성원리」, 『한국군사사』 5, 경인문화사, 2012, 444~447쪽.

72) 이계정 고신; 이계정, 『디지털해남문화대전』(<http://haenam.grandculture.net/haenam>, 검색일: 2023.02.26.).

73) 『영남적고록』 상, 만력 17년, 임진, 4월, 18일; 신흥제, 『디지털영덕문화대전』(<http://haenam.grandculture.net/haenam>, 검색일: 2023.07.17.).

74) 『선무원종공신록권』(규장각, 古 4651-13).

75) 『화산지』(국립중앙도서관, 韓古朝62-133) 권2, 忠勳.

76) 『호남절의록』 3책, 「參佐諸公事實」, 盧潤發.

〈표 1〉 1609년 울산부 거주 신선군과 그 가계

순번	지역	부	조	증조	비고
1	召募民 新選	正兵	幼學	正兵	
2	召募民 新選	正兵	누락	察訪	
3	召募民 新選	保人	正兵	正兵	
4	召募民 新選	水軍	水軍	水軍	
5	召募民 新選	正兵	正兵	正兵	
6	召募民 新選	正兵	正兵	參奉	
7	新選	參奉	內禁衛	없음	호주의 父
8	新選	正兵	正兵	없음	호주의 妻父
9	新選 別侍衛	別侍衛	禦侮將軍	定虜衛	
10	新選	正兵	幼學	幼學	

* 출처: 『光海一年己酉蔚山戶籍大帳』(규장각,奎 14986)

1609년 『울산부호적대장』에서는 호주, 호주의 父 및 妻父의 직역을 대상으로 할 때 신선군 10명의 가계가 확인된다. 이 자료는 임진왜란 전후의 신선군의 가계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⁷⁷⁾

신선군의 가계에 參奉·察訪 등의 실직과 禦侮將軍 등의 군직, 정로위·별시위·내금위 등 중앙의 정예군, 幼學 등이 포함되어 사족 및 이에 준하는 신분으로 추정되는 이들은 순번 1·2·6·7·9·10, 총 6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에 이른다.⁷⁸⁾

가계가 일반 군역인 정병 및 보인으로만 이뤄진 순번 3·5·8의 경우에도 이들의 신분을 常人으로만 보기 어렵다. 이는 16세기 정병의 경우 신분이 상층 양인 및 사족과 연결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⁷⁹⁾

수군과 같이 천역으로 여겨진 직역을 가진 인물을 조상으로 둔 사람은 단

77) 『광해일년기유울산호적대장』(규장각,奎 14986).

78) 직역과 신분에 대해서는 송양섭, 「조선후기 신분·직역 연구와 ‘직역체제’의 인식」, 『조선시대사학보』, 조선시대사학회, 2005, 137쪽 참조.

79) 한성일, 「조선 전기 수군의 지역별 동원 실태와 운영」, 『역사와 경계』 111, 부산경남사학회, 2019, 177~178쪽 참조.

1명(순번 4)에 불과했다. 신선군 중 조상이 수군 및 일반 구역인 정병만으로 이뤄진 이들이 포함된 것은, 전쟁 중 잦은 무과의 시행으로 일반 구역자 및 일반민[常人]이 대거 신선군에 편입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⁸⁰⁾

2) 신선군의 운영

17세기 초~17세기 중반 신선군에 대한 설명에서는, 이들이 병영과 수영에 배치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⁸¹⁾ 하지만 1592년 전라좌수사 이순신이 신선군이 조방군과 더불어 내륙과 연해 각 군현, 변성에 입방했다고 언급한 사실을 고려한다면⁸²⁾ 이들은 병·수영을 비롯한 하삼도 지역의 수군진 및 육군진에 고르게 배치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조선 전기 양계지역의 정예 지방군의 역할을 했던 충보갑사의 사례를 고려한다면, 하삼도 지역의 신선군 역시 중앙 정예군인 정로위·별시위·갑사의 정원 외 병력의 형식으로 창설되었을 가능성이 높다.⁸³⁾ 따라서 신선군은 기본적으로는 육군의 성격이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고문서에서는 충청수영에 조방군으로 파견된 육상 병력들이 신선군으로 대체되었으며, 舒川浦에 배치된 신선군[新選定別]이 助防이라 언급되고 있다.⁸⁴⁾ 이는 16세기 전반~중반 중앙 정예군 및 지방 육군이 助防·添防의 형식으로 수군진에 파견되던 방식이, 신선군에게도 이어졌음을 보여준다.⁸⁵⁾ 임진왜란 초 수군진에 배치된 신선군이 육전으로 소집되는 사례 역시 이들이 기본적으로 육군이었던 사실 보여준다.⁸⁶⁾

다만 하삼도 지역의 방어체제가 수군을 중심으로 편성되었으며, 육군은 그 병력과 군진[留防鎭]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수군에 비해 적었다. 따라서 대규모 육상전이 벌어지지 않았던 평상시 방어체제에서는 육군진보다는 수군

80) 『선조실록』 권158, 선조 36년, 1월 14일(신미).

81) 주 35), 주 36).

82) 주 40).

83) 『세종실록』 권99, 세종 25년 1월 20일(병자).

84) 「군사작전계획서」.

85) 한성일, 앞의 논문, 2011, 139~149쪽.

86) 주 40).

진에 배치된 신선군의 비중이 더욱 높았으리라 추정된다.⁸⁷⁾

신선군이 수군진에 배정된 경우에는, 15세기 후반 이후 수군 조직에서 고질적으로 부족했던 전투원인 射夫의 역할을 했다. 실제로 임진왜란 초기 전라좌수군 사상자를 분석할 경우 신선군이 전선 내에서 사부 역할을 한 것이 확인된다.⁸⁸⁾

16세기 후반 충청수영에는 110명의 신선군이 배치되었다. 당시 수영에 배정된 수군이 3,000여명임 고려한다면, 그 비중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⁸⁹⁾ 다만 수군 정원이 700명인 서천포의 경우에는 신선군이 총 310명이 배치되어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⁹⁰⁾

15세기 후반 수군진 군선의 승조원 중 격군 등 군선의 운항요원을 제외한 射官·射夫 등 전투원의 정원은 30%대였으며, 임진왜란을 전후한 시기에는 약 20% 정도였다.⁹¹⁾ 따라서 신선군은 수군진 전체 병력 중에서는 그 비중이 낮았을지라도, 전투원 중에서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15세기 후반 이래로 수군에 남아 있던 전투원의 전력 저하도 심각했기에, 정예군이었던 신선군은 수군진의 전력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볼 수 있다.⁹²⁾

조선 전기 육상전에서 기병 및 궁수가 중요한 역할을 한 사실을 고려한다면, 신선군은 육상에서도 정예 전투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추정된다.⁹³⁾ 임진왜란 초 경상도 및 전라도 지역에서 수군진 등 각 지역 거점에 배치된 신선군이 육전을 위해 소집된 사실은 이러한 점을 반영한다.⁹⁴⁾

조선 전기 군사들의 복무 방식을 고려한다면, 신선군 역시 각 지역의 요충

87) 주 39), 주 41), 주 42), 주 43), 주 44), 주 45).

88) 주 42), 주 43).

89) 「군사작전계획서」.

90) 「군사작전계획서」, 舒川浦 “水軍元額七百名分二番相遞…助防新選定別并三百十名”.

91) 한성일, 앞의 논문, 2011, 120쪽; 『이충무공전서』 권2, 장계 1, 「講反汗一族勿侵之命狀」, “一船射格并一百三十餘名之軍”; 『訥齋集』 권3, 疏, 「元帥從事時陳弊疏(辛亥)」, “戰船一隻用格軍百名射夫二十五名”.

92) 한성일, 위의 논문, 130~131쪽; 주 40).

93) 김성우, 앞의 논문, 2013, 510~520쪽.

94) 주 40), 주 46).

지에 배정[分防]된 이후 번차를 나누어 교대로 근무했을 것이다. 그리고 여타 병종들과 같이 유사시에는 상번과 하번을 가리지 않고 모두 소집되었다.⁹⁵⁾

다만 이들의 번차와 복무 기간이 얼마나 되었을지는 정확하지 않다. 16세기 중반~후반 충청수영의 경우 기존 중앙정예병과 무과 응시자들이 4번으로 나누어 10일마다 교체하던 것이, 신선군으로 교체된 이후에는 2번으로 바뀐 것이 확인된다.⁹⁶⁾ 다만 이러한 번차는 일반 유방정병에 비해 복무 부담이 매우 심하기에, 이것이 일상적인 사례인지는 의문이다.

신선정로위와 비슷한 역할을 했던 양계 지역의 갑사 및 예차갑사의 경우 유방정병과 같이 4번으로 나누어 1달을 주기로 교체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신선 정로위 역시 양계지역의 갑사와 같은 예로 복무했을 가능성이 높다.⁹⁷⁾

신선군은 삼남지역의 주요한 군진에 대부분 배정되었으며, 번차제로 운영되었기에, 각 진에 배정된 숫자가 많지 않았을지라도, 전체 군액은 상당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다만 16세기 후반 삼남 지역에 배정된 신선군의 총 숫자는 정확히 알기 어렵다.

해군사관학교 박물관에 소장된 『경상좌도병수영근무수첩』라 불리는 자료는, 임진왜란 직전 경상도 지역의 군액이라 추정되는 자료가 기재되어 있다.

一 慶尙道 騎一萬七百四十四 步兵 一萬一千七百六十

…

左道元軍 一萬一千五百內 留(防)…

…

左道分防 五千四百二(十?)

右道移防 三千二百七十九內(지위집)

上番 二千八百三內(細注: 騎一千四百七(十? 지위집) 步 一千三百三十二)

上番各色定別甲 五百四十一

左道元助防定別甲 二百二十三

新選 二千五十內(細注: 左一千二百十六 右八百三十四)⁹⁸⁾

95) 『경국대전』 권4, 「병전」, 번차도목 ; 주 44), 주 45).

96) 『군사작전계획서』.

97) 『경국대전』 권4, 「병전」, 번차도목.

98) 『경상좌도병수영근무수첩』(해군사관학교 박물관, 소장번호: 71-751).

이 자료에 따르면 경상좌도에 소속된 서울로 상번하는 정로위·별시위·갑사가 총 541명, 좌도 지역에 조방으로 배정된 정로위·별시위·갑사가 총 223명, 신선이 2,050명에 달했다. 이는 좌도 정병의 원액이 11,000여명인 것과 비교할 때에, 1/5에 달하는 숫자였다.

전쟁 전 선산부의 군액을 기록한 『일선읍지』에 등장하는 정예군은, 서울로 번상하는 정로위 16명과 갑사 50호, 신선 정로위 35명, 신선 별시위 40호로, 신선군은 총 70명에 달했다. 당시 선산부의 정병이 총 602명인 것을 고려한다면, 전체의 1/8 가량에 달하는 숫자였다.⁹⁹⁾

위 자료의 신선군 군액이 경상좌도만을 기록한 것으로 보이기에 경상도 전체 군액은 3~4천 가량에 달했으리라 추정된다. 따라서 충청도 및 전라도 지역을 합치다면, 전쟁 전 하삼도 지역에는 많게는 1만에 가까운 신선군이 있었으리라 추정된다.

3) 신선군의 총원

전쟁 전 경상도의 경우 수군과 육군 및 여타 군사를 합친 군액이 94,000여명에 이르고, 하삼도의 총 군액이 약 20만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¹⁰⁰⁾ 전체 군액 중 신선군의 비율은 미미하다고 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조선 전기 전체 인구 중 사족 혹은 그에 준하는 계층의 인구가 매우 적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수천에 달하는 신선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사족 및 유력자에 대한 충군 정책이 동반될 수밖에 없었다.

신선군이 설치 직전이라 추정되는 1560년대, 왜변에 대응하기 위해, 하삼도 등 연해 지역을 중심으로 궁술에 능한(能射者) 이를 남김없이 색출하여 편

이 자료는 병영의 업무와 관련된 여러 내용(훈련규식, 군액, 국기일 공신, 공문서 서식, 의전 등)이 적혀있다. 이 책의 이면지는 1600년대 작성된 문서이기에, 이 문서의 작성 연대는 적어도 17세기 초로 추정된다. 다만 이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의 경우, 군사 훈련과 관련해서는 16세기 사정을 반영하는 병종들을 중심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군액 역시 15세기 후반 결정된 것과 유사하다. 따라서 이 발표에서는 이 자료의 군액 수치를 전쟁 직전의 것으로 간주할 예정이다(본 자료가 조선 전기 사실을 반영한다는 사실은 김병룡 선생님의 논의를 통해 알게 되었다).

99) 『일선지 군액』.

100) 『西厓集』 권9, 書, 「與劉總兵(縉)書」.

성하는 조치가 취해졌다.¹⁰¹⁾ 선군의 설치는 이러한 조치의 연장선 혹은 후속 조치라 추정되기에, 신선군은 병력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일정부분 강압적인 조치가 취해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1588년 병조판서였던 율곡이 외방의 무과 응시자를 신선 정로위로 편성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는 무과에 응시했으나 합격하지 못한 이들 중 군역이 없는 이들을 신선 정로위로 일괄 편성한 조치로 추정된다. 이는 ‘무과향시도목’을 통해 일괄적으로 병력을 동원하는 것과 유사한 조치였다.¹⁰²⁾ 율곡의 이러한 정책은 당대 반발로 인해 철회되었지만, 1621년 충청도의 사례를 볼 때 무과에 낙방한 이들을 신선으로 충원하는 조치가 종종 취해진 것으로 추정된다.¹⁰³⁾

임진왜란 당시 정부는 사족 및 상층 양인의 武學 입속을 권장하기 위해, 입속하는 이들에게는 군보 및 신선군의 역을 면제시켜주는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조치는 신선군의 역이 당대 양반 혹은 그에 준하는 이들에게 의무적으로 부과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¹⁰⁴⁾

다만 16세기 사족 및 이에 준하는 이들의 피역이 극심했으며, 자신들이 가진 정치적 자산을 통해 정부 및 지방관을 압박하는 경우가 많았다.¹⁰⁵⁾ 따라서 이들을 군사로 동원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제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으며, 이들의 반발을 약화시킬 유인책을 제시해야 했다.

신선군과 같이 정예 지방군의 성격을 지녔던 양계 지역의 充補甲士·預差甲士 제도는 당시 신선군에 주어졌던 혜택을 일정부분 짐작하게 해준다. 충보·예차감사는 기본적으로 중앙 정예군의 정원 외 병력으로 탄생했으며, 기존 감사 내에 결원이 발생 할 때에 연차 및 무예 실력에 따라 정규 감사로 승

101) 『명종실록』 권29, 명종 18년 7월 병술(10일); 『備禦考』 권6, 「節制方略」, 「癸亥年五月分付備邊司事目」, “能射及壯健人 無遺抄擇 物故老病人 充補其缺 一名是乃 充補不冬 一名是乃 隱匿不出 或許托老病脫漏則 色吏濟州全家 守令重治”.

102) 『선조실록』 권17, 선조 16년, 2월 16일(기해).

103) 『광해군일기(중초본)』 권56, 광해 13년, 6월 23일(계사).

104) 『臚錄類抄』 권8(규장각 소장, 奎15080), 「甲辰四月二十日」, “武學之設初 欲獎勵武才有 如校生之鄉學使之屬名 習業則得免軍保與新選之役 其實實非偶然”.

105) 김성우, 앞의 책, 2001, 123~125쪽.

차할 수 있는 혜택이 있었다.¹⁰⁶⁾

임진왜란 전 신선군이 구체적으로는 신선 정로위·신선 별시위·신선 감사로 구분된 사실을 고려한다면, 신선군 역시 실제로는 중앙 정예군인 정로위·별시위·감사의 정원 외 병력으로 선발되어 장기적으로는 중앙 정예군으로 승차할 수 있는 혜택이 있었으리라 추정된다.¹⁰⁷⁾

또한 신선군은 정예군이라는 전략적인 필요성과, 신분적인 특징으로 인해 군 복무에 있어, 일반 정규군에 비해 좋은 대우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후대의 기록이지만 김홍욱은 신선으로 충원된 병력들이 군영에 입번하여 무예를 익히는 것이 주업무라고 설명, 잡역에 동원되는 일반 군사들에 비해 좋은 대우를 받았음을 언급하고 있다.¹⁰⁸⁾

다만 이러한 복무 특성은 신선군이 타군에 비하여 복무가 쉬운 군역[勳役]이라는 인식을 주었다. 이러한 상황은 전쟁 후 신선군에게 군포를 거두어 재정으로 활용하려는 분위기와 맞물려, 무예 실력이 없고 신분이 비교적 낮은 이들이 다수 신선군에 편입되게 되었다.¹⁰⁹⁾ 이러한 상황은 기존 신선으로 편입된 이들은 이러한 상황에 반발하여 신선군에서 이탈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신선군의 위상은 점차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¹¹⁰⁾

4. 결론

15세기 후반~16세기 군역제의 해체 과정에서, 지방군이었던 수군 및 정병

106) 『세조실록』 권15, 세조 5년 1월 15일(무술), 권17, 세조 5년 7월 17일(병신); 『성종실록』 권57, 성종 6년 7월 22일(기사).

107) 『상산지 군역』; 『일선지 군역』; 『봉화현 군역』; 『승평지 군역』.

108) 「학주집 논병제」, 外方新選, “至于今日 則無一人立番者而沒數收布 故兩班子枝 皆以爲羞厭 避不願入屬矣”.

109) 신선군의 선발은 16세기 전반 정원 외[額外] 정로위·별시위의 취재와 같이 각 도 차원에 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취재를 담당하는 병마절도사 및 감사의 재량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중종실록』 권64, 중종 23년 윤10월 경진(12일); 『목재일기』 권 5, 임자(1552년), 10월 계유(24일); 『초간일기』, 을축(1589년), 3월 9일).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조선후기 사모속으로 분류되는 이유로 추정된다.

110) 「학주집 논병제」, 外方新選.

에서 무재를 익힌 이들이 대거 이탈함에 따라, 하삼도 지역의 방어 태세는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16세기에는 왜구의 침입이 급증하였기에 하삼도 지역의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나마 전투력을 유지했던 정로위·별시위·갑사 등의 정예병을 상시적으로 배치할 수밖에 없었다.

15세기 수도인 한양과 함경도·평안도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정예군이 상시적으로 배치되지 않았다. 이러한 까닭에 16세기 전반~중반 남부 지역의 방어를 위해서 중앙군이 별부방의 형식으로 파견되거나, 무예를 익힌 한량 및 무과 응시자들이 임시적으로 병력으로 편성되어 방어에 동원되었다. 신선군은 방어에 임시적으로 동원되던 이들을 정규군으로 편성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16세기 후반 신선군은 경상도 지역에만 하더라도 수천 가량이 배치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수군진을 중심으로 연해 요충지에 배치되었으며, 수군진에서 射夫와 같은 전투원의 역할을 하였다. 이들은 전체 병력 중에서는 비중이 낮았지만, 전투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했으리라 추정된다.

다만 임진왜란 직전까지 수군진의 병력 중 전통적인 수군 직역을 가진 이들의 비중이 상당함과 동시에, 이들 중에 사부가 일정 부분 존재하고 있었다.¹¹¹⁾ 따라서 임진왜란 전까지는 신선군이 수군 전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¹¹²⁾ 기존 수군 출신의 전투원을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임진왜란 기간 기존 수군이 괴멸되고, 새롭게 수군 병력을 충원하는 과정에서 전투원 중 신선군의 비중은 더욱 커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임진왜란 직후 수군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水軍은 正兵·公私賤과 함께 일괄적으로 격군으로 배정되어 사실상 전투 병력의 역할을 잃어버렸지만, 신선군은 出身·軍功과 함께 전투원인 射夫의 주요한 구성원이 되었다.¹¹³⁾

111) 한성일, 『임진왜란 시기 수군 동원 방식의 실태와 변화』, 『지역과 역사』 51, 부경역사연구소, 2022, 317~328쪽; 「군사작전계획서」, “入防水軍通四番元額三千七百六十名 其中能射人六百名”; 주 41); 주.

112) 주 40).

113) 「경자년 전라도 도체찰사 차자」, “先抽出身軍功新選以爲射夫 次選水軍騎步兵公賤以充格軍”.

수군 조직의 병력 중 전투원인 射夫가 신선군과 여타 상급 병종으로 구성되고, 군선 운항 요원인 格軍·防軍이 일반 군사인 수군·육군 등으로 구성되는 이원적 구조를 보이는 상황은 17세기 전반~중반에도 이어졌다.¹¹⁴⁾

이는 15세기 수군 내에서도 비교적 부유하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射官과, 일반민 혹은 하층민에 가까운 格軍이 동시에 존재하는 양상과 유사했다. 16세기 후반~17세기 초·중반 수군 병력의 구조는 궁술을 익힌 상층 계층에게 천역으로 인식되는 수군역을 부과하여 반발을 낳기보다는, 신선군과 같이 비교적 평판이 좋은 직역을 부여하여 반발을 무마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구조는 사족 혹은 무사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군사 기술인 궁술이 수군 조직에 필요함과 동시에, 이러한 기술을 가진 이들을 신분 상승이라는 유인으로 육성하는 조선의 국역체제가 존속되는 한,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었다.¹¹⁵⁾

다만 17세기 중반~후반 수군의 대립이 국가에 의해 공인되어, 상층 양인과 사족을 실제 전투 병력으로 동원될 필요가 적은 상황에서도 수군 병력이 사부와 방군의 이원적 구성으로 계속해서 유지된 이유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¹¹⁶⁾

114) 「을묘년 경상감사시 서장 1」; 『승정원일기』 61책, 인조 15년 10월 5일(기해); 『退憂堂集』 권7, 啓, 「廉問別單書啓」, “各邑忠順衛 忠翊衛 定虜衛 兼司僕 新選等 諸色軍兵 各其軍例應納價布之外 皆自本道作隊隨行 又入於舟師射夫分防 一身三役”.

115) 한성일, 앞의 논문, 2011, 151~152쪽.

116) 조선 후기 수군 내 병종의 이원적 구성은 송기중, 『조선 후기 수군 연구』, 역사비평사, 2019, 96~103쪽, 211~217쪽 참조.

참고문헌

1. 사료

- 『世祖實錄』 『成宗實錄』 『中宗實錄』 『明宗實錄』 『宣祖實錄』
『光海君日記(중초본)』 『仁祖實錄』 『承政院日記』 『備邊司謄錄』
『眉巖日記』 『亂中日記』 『征蠻錄』
『嶺南積苦錄』(성균관대학교 존경각, 稀 B09O-0017) 『壬辰狀草』
『啓本謄錄』(규장각, 古4255-17) 『謄錄類抄』(규장각, 奎 15080)
『琴易堂集』 『南坡相國集』 『磻溪隨錄』 『白沙集』
『李忠武公全書』 『鶴洲集』
『商山誌』(규장각, 古4790-31-v.1-2)
『昇平志』(고려대학교 도서관, 대학원 B10 A92)
『一善誌』(규장각: 奎15484-v.1-3)
『경상좌도병수영근무수첩』(해군사관학교 박물관, 수장번호 71-751)
『군사작전계획서』(육군박물관, 유물번호 087111/000)
『광해일년기유물산호적대장』(규장각, 奎 14986)
『선무공신녹권』(규장각, 古 4651-13)
『관서양역실총』(규장각, 奎 12210)
『양역실총』(규장각, 奎貴 12210)
『부역실총』(규장각, 奎貴 252)
「이계정 고신(만력 2년 6월 초4일)」(영산사 소장,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http://hncostma.org>, 검색일: 2023.07.14.))

2. 논저

- 김성우, 「16세기 중반 국가의 군역 동원방식과 성주 사족층의 대응」, 『조선시대사학보』 18, 2001.
_____, 『조선중기 국가와 사족』, 역사비평서, 2001.
_____, 「임진왜란 시기 관군은 왜 약했는가?」, 『역사와 현실』 87, 2013.
김병룡, 「절제방략과 제승방략」, 『학예지』 19, 2012.
_____, 「『절제방략』으로 본 남도제승방략의 주요 특징의 형성과정과 ‘4운 체제」, 『역사와 실학』 62, 2017.

- 김정웅, 『조선초기 지방군 운영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2.
- 노영구, 「중앙군의 편성과 운영 방식」, 『한국군사사』 5, 경인문화사, 2012.
- _____, 「진관체제의 확립과 운용」, 『한국군사사』 5, 경인문화사, 2012.
- 송병규, 「구역운영의 전개」, 『조선왕조 재정시스템의 재발견』, 역사비평사, 2008.
- 송양섭, 「조선후기 신분·지역 연구와 ‘직역체제’의 인식」, 『조선시대사학보』, 조선시대사학회, 2005.
- _____, 「구역과 군역의 편성원리」, 『한국군사사』 5, 경인문화사, 2012.
- _____, 「조선후기 강진병영의 지휘체계와 군수조달」, 『역사학연구』 69, 2013.
- 송기중, 『조선 후기 수군 연구』, 역사비평사, 2019.
- 육군사관학교 한국군사연구실, 『한국군제사-근세조선전기편』, 육군본부, 1968.
- 윤용출, 「임진왜란 시기 군역제의 동요와 개편」, 『부대사학』 13, 1989.
- 이민웅, 「수군의 체제 정비와 제도적 발전」, 『한국군사사』 5, 경인문화사, 2012.
- 이호준, 「임진왜란 초기 경상도 지역 전투와 군사체제」, 『군사』 77, 2010.
- 제장명, 「임진왜란 시기 전라좌수군의 전투구성원과 전투 수행」, 『이순신연구 논총』 21,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2014.
- 한성일, 「16세기 조선 수군의 전술과 궁수」, 『역사와 세계』 39, 2011.
- _____, 「조선 전기 수군의 지역별 동원 실태와 운영」, 『역사와 경계』 111, 2019.

3. 기타자료

한국고전번역원, 고전번역원db (<https://db.itkc.or.kr>, 검색일: 2024.06.16.)

한국학중앙연구원, 『조선왕조실록사전』

(<http://waks.aks.ac.kr/rsh/?rshID=AKS-2013-CKD-1240001>,

검색일: 2021.03.04.)

_____, 『디지털해남문화대전』

(<http://haenam.grandculture.net/haenam/toc/GC07300630>,

검색일: 2023.02.26.)

〈Abstract〉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Sinseongun in the late 16th century

Han, Sung-Il

Sinseon-gun(新選軍) was an elite army established in Hassam-do(下三道, Gyeongsang-do, Jeolla-do, and Chungcheong-do) in the late 16th century. Sinseon-gun refers to “Sinsun-Jeong-ro-wi(定虜衛), Byeol-si-wi(別侍衛), and Gap-sa(甲士).” However, since the term “Sinsun(新選)” means “newly selected,” Sinseon-gun was also understood as a “newly selected military.”

The reason why this army came to be called ‘Shinseon’ seems to be that it was a newly selected soldier outside the regular ranks of ‘Jeong-ro-wi, Byeol-si-wi, and Gap-sa’, which were elite soldiers. This army had the character of ‘Jeong-ro-wi, Byeol-si-wi, and Gap-sa’ appointed as probation. These were distinguished from the regular ‘Jeongrowi, Byeol-shiwi, and Gapsa’. They were promoted to the regular army when there were vacancies in the regular army.

In the early Joseon Dynasty, elite army were deployed only in the capital, Hanyang, and Pyongan-do and Hamgyeong-do. For the defense of the Hasamdo area, only the regular Sugun(水軍), that means navy, and Jeongbyeong(正兵), that means land army, were mobilized.

In the 16th century, the power of the navy and land army was rapidly weakened, and the only troops that maintained combat capabilities were elite army selected by testing martial arts. As the invasion of Japanese pirates increased rapidly in the 16th century, the need to deploy elite army in the Hasamdo area increased. However, if a large number of elite army were deployed in this area, the defense of the capital would inevitably be weakened.

In the first half of the 16th century, the Joseon government mobilized those who were learning martial arts in order to apply for Mu-gwa(武科),

that means an officer selection examination, on behalf of the central elite army to defend the southern region. They were called Hallyang(閑良) because they were noblemen or upper-class people who did not serve in the military.

From the late 16th century to the early 17th century, the target of conscription for the Shinseon-gun was a candidate for Mu-gwa who did not serve in the military. Considering this point, the establishment of Sinseongun was an institutional reorganization of the conscription of Hanryang. It is also presumed that this system promoted the efficiency of mobilization of troops. Sinseon-gun served in the naval and army camps in the Hasamdo area.

In the late 16th century, those who joined the Shinseon-gun were mostly wealthy nobles or upper class people. This was because in order to learn martial arts, they had to equip themselves with expensive weapons and horses at their own expense and practice martial arts for a long time.

Because the Shinseon-gun was an elite army and consisted of people of high status, so it was treated better than the general regular army. For this reason, in the early 17th century, more and more people who had not learned martial arts or were not of high social status joined the Shinseon-gun to escape the arduous military service, and the social status of the Shinseon-gun gradually declined.

* Key Words: Shinseon-gun, New Select Soldiers, Sinseon-Jeong-ro-wi, Elite army of Joseon, Joseon Navy

· 논문투고일: 2024년 06월 16일 · 심사완료일: 2024년 07월 22일 · 게재결정일: 2024년 07월 25일